

# FKI ISSUE PAPER

2005. 7. 22 (제 27호)

## 韓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

### 목 차

I. 韓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.....	1
II. 韓·日, 韓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비교 .....	14
III. 시사점 .....	16

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&lt;요 약&gt;

## □ KIET 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수용도는 71.1%

## 한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05. 3. 22 ~ 6. 10
- 조사목적 : 산업연구원의 한·아세안 FTA 상품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관세양허안에 반영
- 조사결과 : 367개 품목에 대하여 312개 기업으로부터 의견접수
  - ※ 산업연구원(KIET)의 양허안은 2~3년내(단기) 철폐, 5~7년내(중기) 철폐, 10년내(장기) 철폐의 3단계로 구분

- KIET 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 수용도는 71.1%로 나타났으며, 28.9%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

- 이는 한·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(2004. 7)에서 나타난 수용도보다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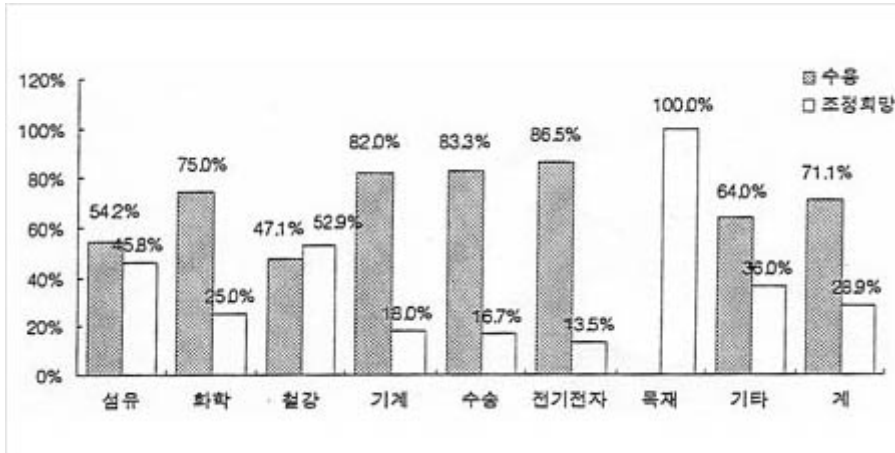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구 분	수용	조정
한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	71.1	28.9
한·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	38.2	61.8

- 조정을 희망한 28.9%의 의견 중, 73.6%는 관세철폐시한 연장을, 26.4%는 철폐시한 조기단축을 희망

- 단기철폐 품목의 경우 72.3%가 수용을, 27.7%가 유예를 희망
- 중기철폐 품목의 경우 67.4%가 수용을, 22.8%는 조기철폐를, 9.8%는 유예를 희망
- 장기철폐 품목의 경우 73.1%가 수용을, 26.9%가 조기철폐를 희망

- 업종별로, 전기전자(86.5%), 수송(83.3%), 기계(82%), 화학(75%), 섬유(54.2%)의 순으로 수용도가 높음



- 대기업(72%)과 중소기업(74.5%)이 중견기업(59.4%)보다 KIET 양허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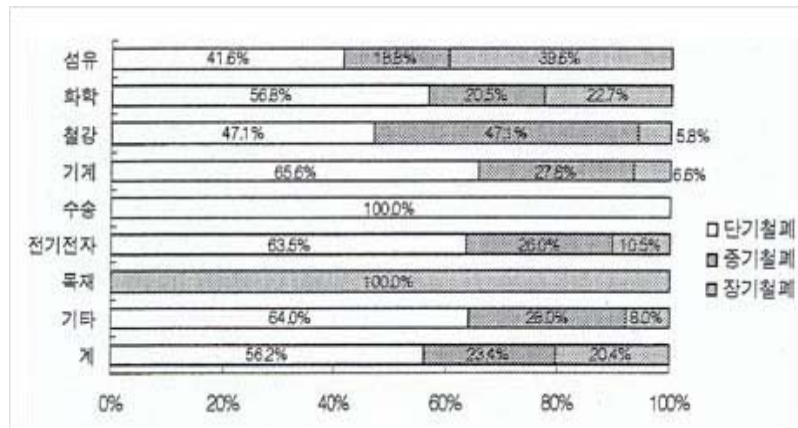
□ 업계의 희망양허안 : 56.2%가 단기철폐 희망

- 전체업계의 희망양허안을 보면, 단기철폐 56.2%, 중기철폐 23.4%, 장기철폐 20.4%로 각각 조사

- 단기철폐 희망도는 한·일 FTA 조사결과(30.6%) 보다 높게 나타남  
(단위 : %)

구 분	한·일 FTA	한·아세안 FTA
단기철폐	30.6	56.2
중기철폐	25.2	23.4
장기철폐	44.2	20.4

- 업종별로는 수송(100%)의 단기철폐 희망도가 가장 높았으며, 기계(65.6%), 전기전자(63.5%), 화학(56.8%)의 순으로 높은 단기철폐 희망도를 보여줌



- 중소기업(63.7%)이 대기업(47.7%)과 중견기업(46.9%)보다 단기철폐를 선호
- 대기업(32.7%)과 중견기업(35.9%)은 중소기업(8.7%)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철폐 선호도를 보임

- ASEAN측이 제시한 역내부가가치 40% 누적 단일기준에 대하여 업계의 69%가 수용의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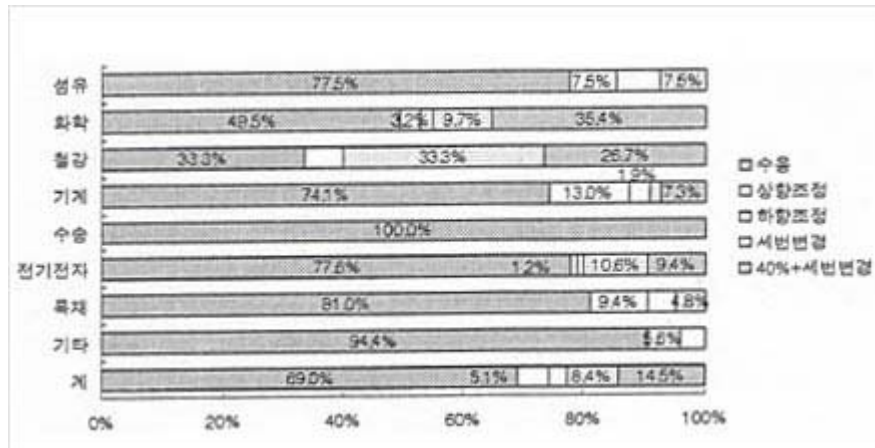
#### <역내부가가치누적>

역내부가가치누적이란, 제품생산에 사용된 재료(부품)가 수출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이라도 FTA에 참여하는 여타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(부품)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원산지로서 간주하여 부가가치 계산 시 합산하는 제도로써 전세계 FTA에서 인정되는 기본원칙임.

ASEAN은 AFTA 내에서 40% 기준(역내에서 누적된 부가가치가 40% 이상일 경우 인정)을 사용하고 있으며, 우리측에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.

○ 아세안측이 제시한 원산지기준안에 대하여 업계의 69%는 수용을, 31%는 조정을 희망

- 업종별로는 수송(100%), 목재(81%), 전기전자(77.6%), 섬유(77.5%), 기계(74.1%)의 순으로 수용도가 높음



○ 원산지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그 방안으로 다음을 각각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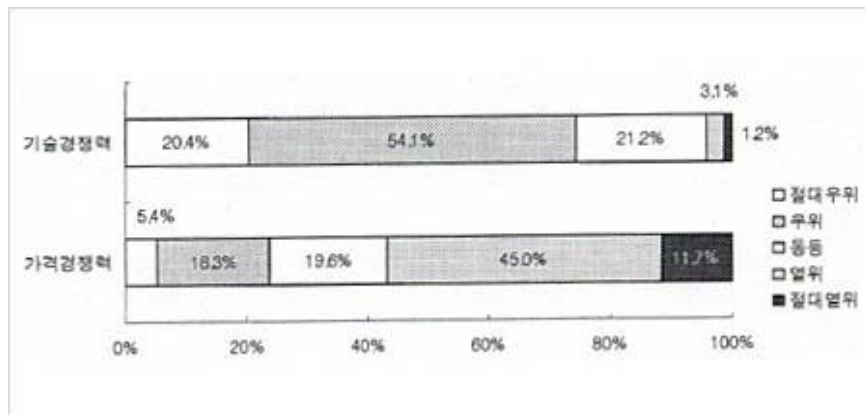
-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 기준의 동시 충족(47.1%)
- 세번변경 기준 적용(26.9%)
- 부가가치비율 상향조정(16.4%)
- 부가가치비율 하향조정(9.6%)

○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제(38.2%)보다 자율발급제(61.8%)를 선호

□ 우리 제품은 아세안에 비해 기술경쟁력은 우위(74.5%)에 있는 반면, 가격경쟁력은 열위(56.7%)

○ 기술경쟁력 : 절대우위(20.4%), 우위(54.1%), 동등(21.2%), 열위(3.1%), 절대열위(1.2%)

○ 가격경쟁력 : 절대우위(5.4%), 우위(18.3%), 동등(19.6%), 열위(45%), 절대열위(11.7%)



□ 정부는 업계의견을 반영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아세안과의 FTA 조기 체결 바람직

○ 상품양허안 뿐만 아니라, 원산지기준 등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안 마련

-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관세철폐 유예기간 확보
- 업계의 애로사항, 경쟁력 취약 업종 및 사유 등을 파악하여 협상에 반영

○ 금년내 상품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완료하여 아세안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

- 정부목표 : 중국, 일본에 앞서 2009년까지 최소 80% 품목에 대하여 관세 철폐
- 중국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합의
- 일본은 2012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합의
- 인도와 호주도 ASEAN과의 FTA 추진

□ 기업은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여 한·아세안 FTA를 이윤창출의 극대화 계기로 활용

- 최근 인프라 부족, 인력 부족, 통상마찰 등 대중국 투자 애로사항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은 대안이 될 수 있음
- 일본 기업들은 이미 현지에 대거 진출해있어 아세안의 FTA 효과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,
  - 우리기업도 적절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한·아세안 FTA를 비롯한 동 지역의 FTA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

# I. 韓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

## 1. 조사개요

### □ 조사기간

○ 2005년 3월 22일 ~ 6월 10일

### □ 조사목적

○ 산업연구원(KIET)의 한·아세안 FTA 상품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관세양허안에 반영

※ KIET 양허안은 2~3년내(단기) 철폐, 5~7년내(중기) 철폐, 10년내(장기) 철폐의 3단계로 구분

### □ 조사대상 및 최종 회수 품목

○ 산자부 요청 766개 품목 중 일부를 제외한 70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, 367개 품목에 대하여 312개 기업<sup>1)</sup>으로부터 의견 접수

업종별 최종 분석대상 품목수

구 분	섬유	화학	철강	기계	수송	전기전자	목재	기타	계
품목수	48	88	17	61	6	104	25	18	367

규모별 응답기업 수

구 분	대기업 (종업원 1,000명 이상)	중견기업 (300~1,000명)	중소기업 (300명 미만)	계
기업수	35	52	225	312

1) 복수품목에 대하여 동일기업이 응답할 경우, 기업수는 1로 계산



## 2. 상품관세양허안 관련 조사결과

### □ 개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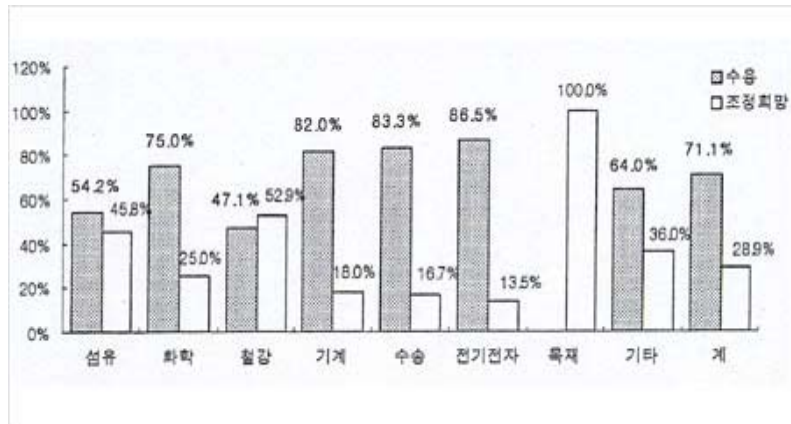
- KIET 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수용도는 71.1%로 나타났으며, 28.9%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
- 조정 희망 품목 중 73.6%는 관세철폐시한 연장을, 26.4%는 철폐시한 조기단축을 희망함
  - 단기철폐 품목의 경우 72.3%가 수용을, 27.7%가 유예를 희망
  - 중기철폐 품목의 경우 67.4%가 수용을, 22.8%는 조기철폐를, 9.8%는 유예를 희망
  - 장기철폐 품목의 경우 73.1%가 수용을, 26.9%가 조기철폐를 희망
- ※ KIET 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이러한 수용도는 한·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('04. 7) 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

(단위 : %)

구 분	수용	조정
한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	71.1	28.9
한·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	38.2	61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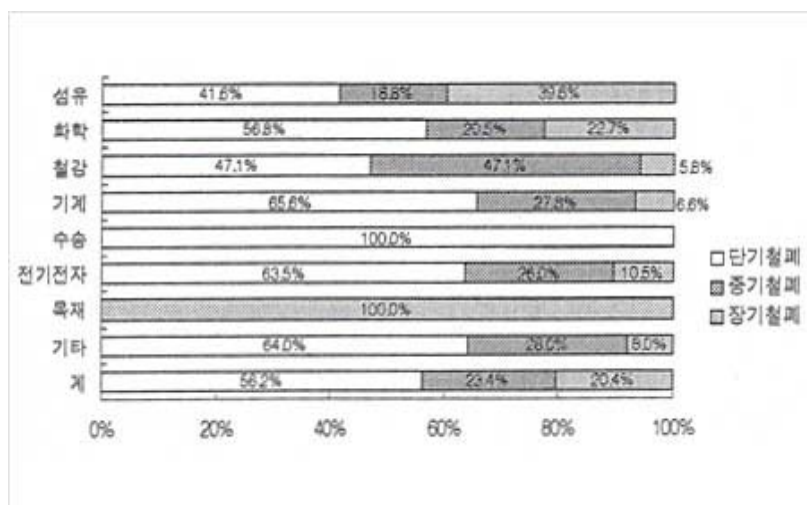
### □ 업종별 KIET 관세양허안 수용도

- KIET 양허안에 대하여 전기전자(86.5%), 수송(83.3%), 기계(82%), 화학(75%), 섬유(54.2%)의 순으로 수용도가 높음
- 목재는 100% 조정을 희망하였고, 철강(52.9%)과 섬유(45.8%)에 대한 조정 희망도도 다소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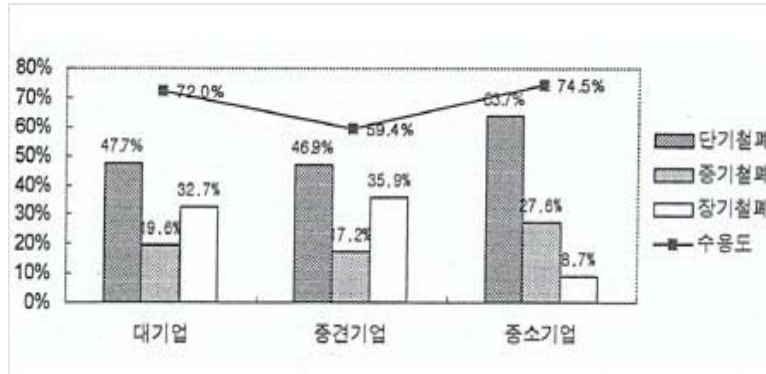
□ 업종별 희망양허안

- 전체업계의 희망양허안을 보면, 단기철폐 56.2%, 중기철폐 23.4%, 장기철폐 20.4%로 각각 조사
- 업종별로는 수송(100%)의 단기철폐 희망도가 가장 높고, 기계(65.6%), 전기전자(63.5%), 화학(56.8%)의 순으로 높은 단기철폐 희망도를 보여줌
- 반면, 목재의 경우 100% 장기철폐를 희망하였고, 섬유(39.6%), 화학(22.7%)도 비교적 장기유예에 대한 희망도가 높았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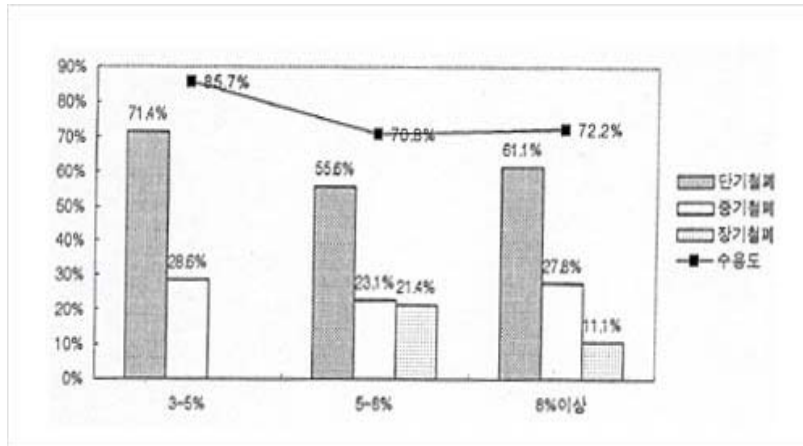
□ 기업규모별 KIET 양허안 수용도 및 희망양허안

- 대기업(72%)과 중소기업(74.5%)이 중견기업(59.4%)보다 KIET 양허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
- 업계의 희망양허안을 보면, 중소기업(63.7%)이 대기업(47.7%)과 중견기업(46.9%) 보다 단기철폐를 선호



□ 수입관세율별 KIET 양허안 수용도 및 희망양허안

- 실행관세율이 낮은 품목이 높은 품목에 비해 KIET 관세양허안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KIET 관세양허안 수용도 : 관세율 3~5% 품목(85.7%), 관세율 5~8% 품목(70.8%), 관세율 8% 이상 품목(72.2%)
- 관세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낮은 품목에 비해 비교적 5년 이상 장기철폐를 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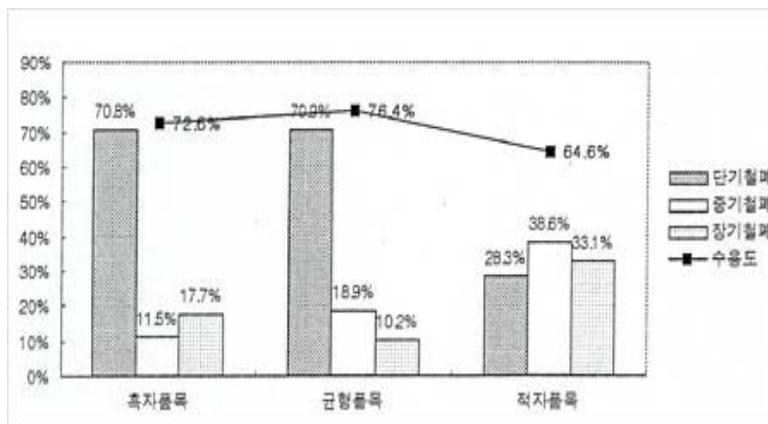


□ 무역특화지수별 KIET 양허안 수용도 및 희망양허안

○ 무역균형 품목과 무역흑자 품목이 무역적자 품목에 비해 KIET 관세양허안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

- KIET 양허안에 대한 수용도 : 무역균형 품목(76.4%), 무역흑자 품목(72.6%), 무역적자 품목(64.6%)

○ 희망양허안 측면에서도 무역적자 품목이 타 품목에 비하여 장기철폐 희망 비중이 높았으며, 무역균형 품목과 무역흑자 품목의 관세 조기철폐 희망도는 70%를 상회



### 무역특화지수와 무역수지

무역특화지수(TSI)는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품목의 수출입량에 따라 동 품목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지수로서, 이번 조사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됨

$$\text{대ASEAN TSI} = \frac{(\text{대ASEAN 수출} - \text{대ASEAN 수입})}{(\text{대ASEAN 수출} + \text{대ASEAN 수입})}$$

일반적으로 TSI가 -1.0~-0.5인 품목은 무역적자, -0.5~0.5인 품목은 무역균형, 0.5~1.0인 품목은 무역흑자인 품목으로 봄

### 3. 원산지기준 관련 조사결과

#### □ 역내부가가치 40% 누적 단일기준 수용도 및 희망안

##### 역내부가가치누적

역내부가가치누적이란, 제품생산에 사용된 재료(부품)가 수출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이라도 FTA에 참여하는 여타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(부품)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원산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 계산 시 합산하는 제도로써 전세계 FTA에서 인정되는 기본원칙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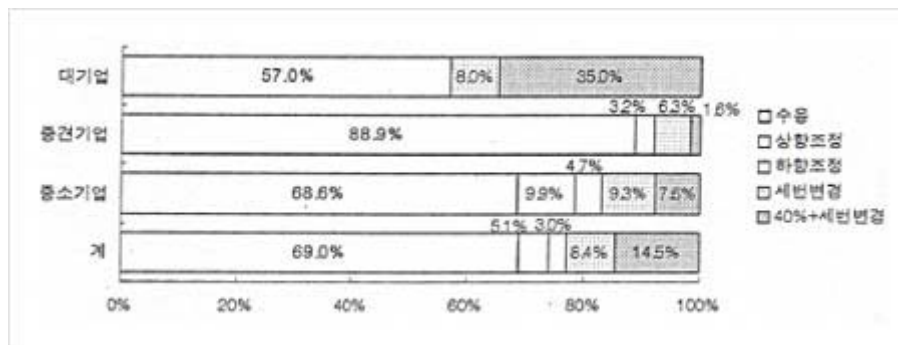
ASEAN은 AFTA 내에서 40% 기준(역내에서 누적된 부가가치가 40% 이상일 경우 인정)을 사용하고 있으며, 우리측에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.

- 아세안측이 제시한 원산지기준안에 대하여 업계의 69%는 수용을, 31%는 조정을 희망
  - 업종별로는 수송(100%), 목재(81%), 전기전자(77.6%), 섬유(77.5%), 기계(74.1%)의 순으로 수용도가 높은 반면, 철강, 화학은 낮은 것으로 조사
- 원산지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그 방안으로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 기준의 동시 충족(47.1%), 세번변경 기준 적용(26.9%), 부가가치비율 상향조정(16.4%), 부가가치비율 하향조정(9.6%)을 각각 제시

- 업종별로는 화학(35.4%), 철강(26.7%)에서 부가가치누적 및 세번변경 양 기준의 동시충족 희망도가 높았으며,
- 철강(33.3%), 전기전자(10.6%), 화학(9.7%)업종의 일부는 세번변경 기준의 단독적용을 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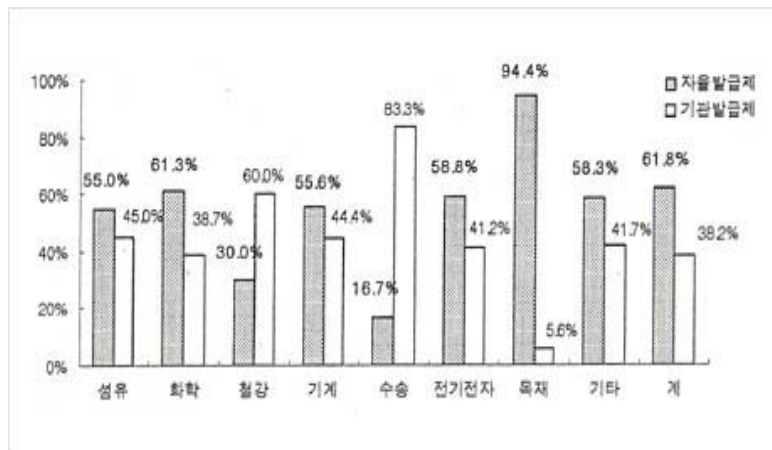
□ 기업규모별 부가가치누적 단일 기준안 수용도 및 희망안

- 부가가치 40% 누적 단일기준안에 대하여 대기업(57%) 보다 중견기업(88.9%)과 중소기업(68.6%)의 수용도가 더 높게 나타남
- 조정을 희망한 기업의 의견을 규모별로 살펴보면,
  - 대기업은 부가가치 및 세번변경 기준 동시충족(35%)을 선호하는 가운데, 일부는 세번변경 기준 적용을 희망
  - 중견기업은 세번변경 기준, 부가가치 비율 하향조정, 동시충족의 순으로 희망
  -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비율 상향조정, 세번변경 기준, 동시충족의 순으로 희망



□ 원산지증명 발급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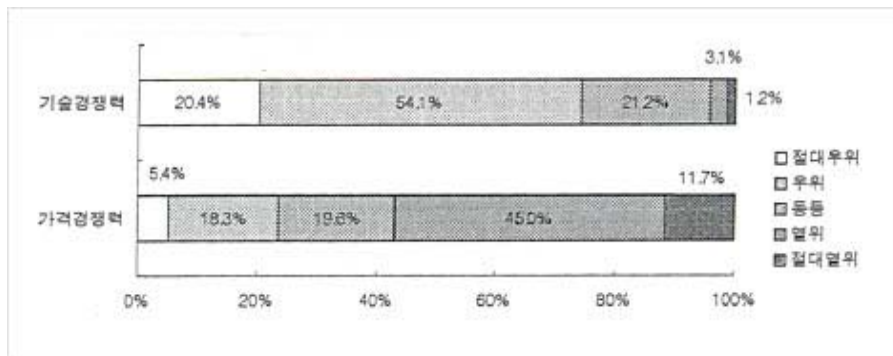
- 업체는 원산지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제보다 자율발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응답기업 335개사 중 61.8%(207개사)는 자율발급제를, 38.2%(128개사)는 기관발급제를 각각 희망
- 업종별로 수송, 철강 업종은 기관발급제, 여타 업종은 자율발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
  - 기관발급제 선호 업종 : 수송(83.3%), 철강(60%)
  - 자율발급제 선호 업종 : 목재(94.4%), 화학(61.3%), 전기전자(58.8%), 기계(55.6%), 섬유(55%)



## 4. 對아세안 경쟁력 조사결과

### □ 개관

- 기술경쟁력에 있어서 74.5%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세안 상품에 대하여  
우위라고 응답하는 등 우리 제품이 아세안 국가에 비해 우월한 것 조사
  - 기술경쟁력 : 절대우위(20.4%), 우위(54.1%), 동등(21.2%), 열위(3.1%),  
절대열위(1.2%)
-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56.7%에 해당하는 품목이 대아세안 열위라고  
응답
  - 가격경쟁력 : 절대우위(5.4%), 우위(18.3%), 동등(19.6%), 열위(45%),  
절대열위(11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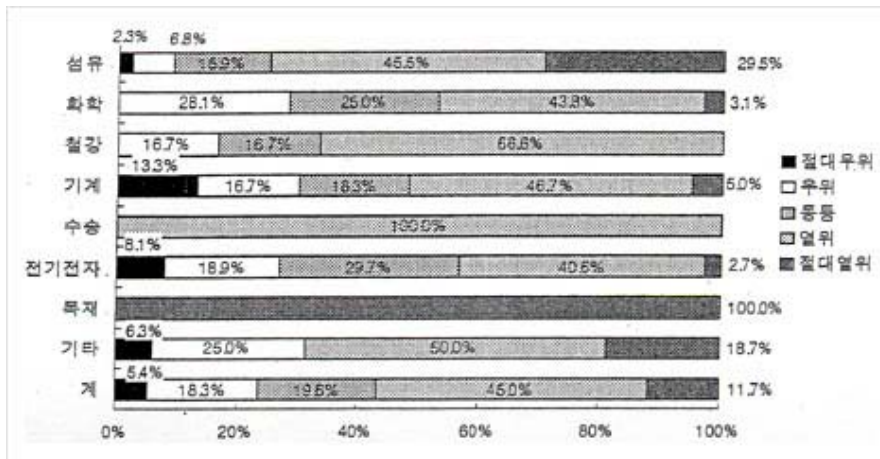


주) : 조사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경쟁력에 대하여 240개, 기술경쟁력에 대하여 255개 품목에 대한 응답 분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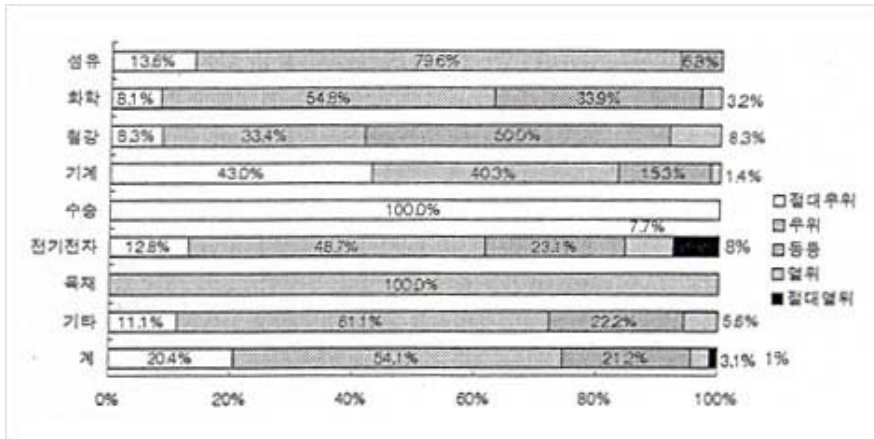
## □ 업종별 가격경쟁력

- 가격경쟁력 ‘우위’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계(30%), 화학(28.1%), 전기전자(2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,
- 목재(절대열위 100%), 수송(열위 100%), 섬유(열위 이하 75%), 철강(열위 66.6%), 기계(열위 이하 51.7%) 등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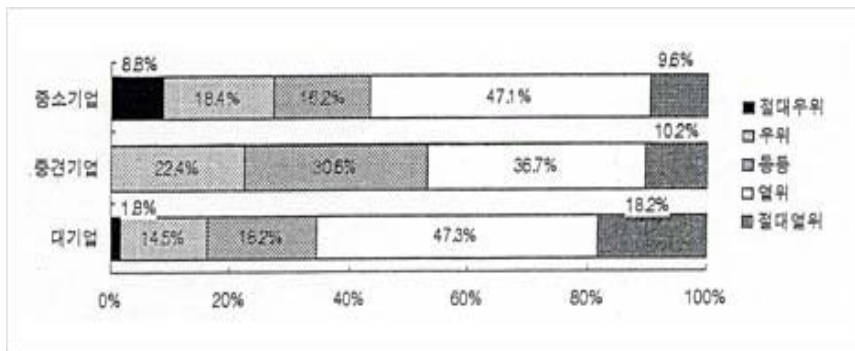
## □ 업종별 기술경쟁력

- 수송(절대우위 100%), 목재(우위 100%), 섬유(이하 우위 이상 93.2%), 기계(83.3%), 화학(62.9%), 전기전자(61.5%) 등은 기술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
  - 특히 수송과 목재는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 매우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으나,
  - 기계, 화학, 전기전자는 기술과 가격에서 상당부분 균형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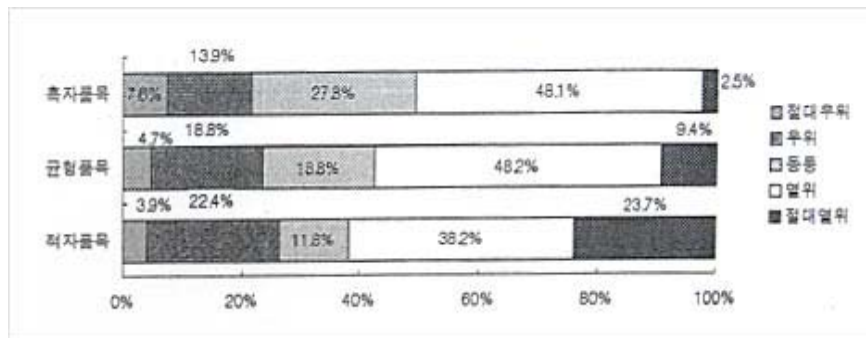
□ 기업규모별 가격경쟁력

- 대기업의 16.3%만이 아세안에 대하여 ‘우위’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,
  - 중견기업의 22.4%, 중소기업의 27.2%가 대아세안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응답
- 그러나, 전반적으로 대아세안 가격경쟁력은 열위
  - 열위 이하 응답비율 : 대기업(65.5%), 중견기업(46.9%), 중소기업(56.7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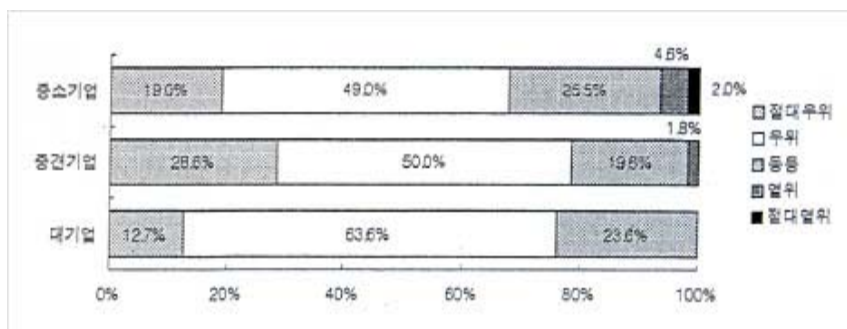
□ 기업규모별 기술경쟁력

- 중소기업 보다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비율이 높음
  - 우위 이상 응답비율 : 대기업(76%), 중견기업(78.6%), 중소기업(68%)



□ 무역특화지수별 가격경쟁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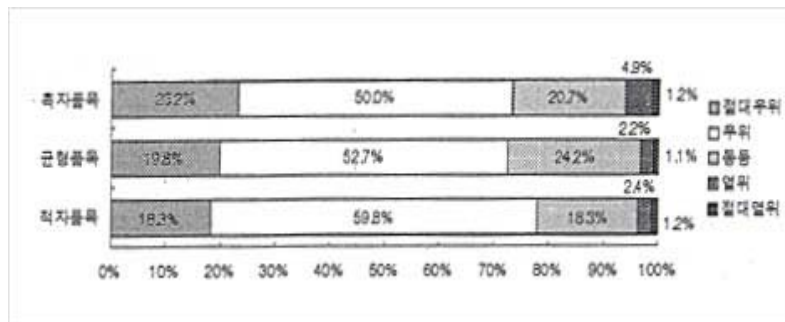
- 무역흑자품목에 비하여 균형품목과 적자품목에서 다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  - 단, 흑자품목의 경우 절대우위 응답비율은 근소하게 높고, 열위 이하 응답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남
  - 우위 이상 응답비율 : 흑자품목(21.5%), 균형품목(23.5%), 적자품목(26.3%)
  - 열위 이하 응답비율 : 흑자품목(50.6%), 균형품목(57.6%), 적자품목(61.9%)



□ 무역특화지수별 기술경쟁력

○기술경쟁력에 있어서는 우위 이상의 응답비율이 고루 높게 조사

- 흑자품목의 경우 절대우위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- 우위 이상 응답비율 : 흑자품목(73.2%), 균형품목(72.5%), 적자품목(78.1%)



## II. 韓·日, 韓·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비교

### □ 전체 수용도 비교

- 한·일 FTA 실태조사 결과, KIET안에 대한 수용도는 38.7%에 불과했으나, 한·아세안 FTA 실태조사의 경우 71.1%의 수용도를 나타냄
- 조정희망 응답 중 조기철폐 희망도는 한·아세안 FTA 조사결과(26.4%) 보다 한·일 FTA 조사결과(36.6%)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

(단위 : %)

구 분	수용	조정	조정희망안	
			조기철폐	유예
한·일 FTA	38.7	61.3	36.6	63.4
한·아세안 FTA	71.1	28.9	26.4	73.6

### □ 업종별 수용도 비교

-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·일 FTA 보다 한·아세안 FTA 관세양허안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게 조사됨

(단위 : %)

구 분	한·일 FTA	한·아세안 FTA
섬 유	21.9	54.2
화 학	40.4	75
철 강	30.0	47.1
기 계	74.4	82.0
수 송	39.4	83.3
전 기 전 자	33.2	86.5
목 재	N.A.	0
기 타	N.A.	64.0

주 : 한·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에서는 목재와 기타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

□ 규모별 수용도 비교

- 한·일 FTA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(29.1%), 중견기업(54.1%), 중소기업(38%) 모두 낮은 수용도를 나타냈으나,
- 한·아세안 FTA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(59.4%)만 다소 낮을 뿐, 대기업(72%), 중소기업(74.5%) 모두 높은 수용도를 보임

(단위 : %)

구 분	한·일 FTA	한·아세안 FTA
대 기 업	29.1	72.0
중 견 기 업	54.1	59.4
중 소 기 업	38.0	74.5

□ 희망양허안 비교

-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을 희망한 응답 중 조기철폐로의 조정희망도는 한·일 FTA 조사결과(36.6%)보다 한·아세안 FTA 조사결과(26.4%)가 다소 낮았으나,
- 희망양허안의 경우, 조기철폐 희망도는 한·일 FTA 조사보다 한·아세안 FTA 실태조사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

(단위 : %)

구 분	한·일 FTA	한·아세안 FTA
단 기 철폐	30.6	56.2
중 기 철폐	25.2	23.4
장 기 철폐	44.2	20.4

### Ⅲ. 시사점

#### □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안 마련 필요

- 상품양허안 뿐만 아니라, 원산지기준 등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안 마련
  -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관세철폐 유예기간 확보
  -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개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조기개방
- 업계의 애로사항, 경쟁력 취약 업종 및 사유 등을 파악해 협상에 반영

#### □ 한·아세안 FTA 상품분야 협상 금년내 타결 노력

- 금년내 상품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완료하여 아세안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
  - 정부목표 : 중국, 일본에 앞서 2009년까지 최소 80% 품목에 대하여 관세 철폐
  - 중국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합의
  - 일본은 2012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합의
  - 인도와 호주도 ASEAN과의 FTA 추진

□ 한·아세안 FTA를 현지 투자 활성화 기회로 활용

○ 기업은 ASEAN 지역에 대한 현지투자를 확대하여 한·아세안 FTA를 이윤창출 극대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

- 최근 인프라 부족, 인력 부족, 토양마찰 등 대중국 투자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아세안 지역은 대안이 될 수 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한·아세안 FTA는 새로운 기회 제공
  - 한·아세안 FTA 체결 시 관세 대폭 인하
  - 중·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대중국 시장 공략 유리
  - 미·중 통상마찰에 따른 대미수출시 부담 해소  
(예 :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양국간 마찰)
  - 베트남 등 일부 ASEAN 회원국은 중국보다 인건비 저렴



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FTA팀 조성대 조사역 TEL : 3771-0461 FAX : 3771-0110 E-mail : ndcho@fki.or.kr